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증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en.org

일본어판 gpnewsjp.org

중국어판 gpnews.cn.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1. 7 ~ 2024. 1. 27 제293호

감신대 신학생, “귀어운동 지 지안한다... 언론은 왜곡보도 말라” 성명 잇따라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 학생들이 최근 목회자 신분으로 동성에 지지 활동을 하다 출교 판결을 받은 전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왜곡된 날조라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감신대 학생들로 구성된 '하기모'(대표자 유성엽 외 41명)는 지난 21일 "몇몇 특정 언론에서 감신대 신학생들이 이동환 씨의 귀어운동을 지지한다는 듯이 기사를 냈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날조로서 여론조작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이동환 씨는 명백한 유죄"라며 "감신대 신학생들은 이동환 씨에 대한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을 강력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감신대 대다수 신학생들은 그릇된 귀어신학과 귀어운동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귀어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하며 잘못된 성윤리를 부추기는 이동환 씨를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리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이 온전히 지켜지고 적용될 때 감리교가 더욱 바로 세워질 수 있으며, 이동환 씨에 대한 출교 판결은 교리와 장정에 의거한 올바른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경은 동성애가 명백한 죄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권'을 운운하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단의 지도자들께서 강력한

대응과 조치로 일관해주시길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 감리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교회를 살려내며, 다음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데에 앞장서기를 기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감신대 동아리 '바이블모스'(회장 정민선 외 24명)도 성명을 통해 "여러 곳에서 올라오는 기사와 성명서를 보면 마치 대다수 감리교 신학생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듯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현장에 있는 신학생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역시 "이번 감리교회의 이동환 씨 출교 판결을 지지하며, 이러한 판결이 있어야 신학생들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신학 그리고 교리와 장정 안에서 목회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PNEWS]



▲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처: 감리교신학대학교



이명진 원장 (명이비인후과 원장,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의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의사 평론가, 장로, 전도자. 그리고 크고 작은 단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명진 명이비인후과 원

장이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막 진료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좁은 사무실에서 그동안 주님

이 이끌어오신 은혜의 순간들을 폭포수같이 쏟아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76)

‘사탄’= 속이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을 이 세상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곧 그들의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셨다.

그러나 사탄이 동산으로 슬며시 들어왔다. 사탄은 소리 높여 자신을 광고하지 않았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한다. 사탄은 거룩한 진리를 말할 능력이 없는, 늘 '속이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서 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요한복음 8:44, KLB)

성경의 원문에서 사용된 '거짓(pseudo)'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이 단어는 주로 가짜, 모조품, 유사품 등을 표현하는 일에 사용된다. 가끔 몸은 시벨경고, 머리에는 뿔이 있으며, 꼬리는 길고 뾰

족한 데다, 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쇠스랑을 든 흉측한 모습으로 사탄을 묘사한 그림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모습과 마주친다면, 누구라도 놀라 뒷걸음질을 칠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의 그런 흉측한 모습은 실제 사실과 다른 묘사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고린도후서 11:14b, TKV)

사탄은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거룩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탄은 종교로 위장하는 데



일러스트=김경선

도 대단히 능란해서 진리를 가장해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기까지 한다. 속이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며, 거짓으로 교묘하게 꾸미는 것이 그의 능력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를 시벨건 몸에 쇠스랑을 손에 든 흉측한 모습으로 묘사해 주기를 바라지도 모른다. 사람

들이 엉뚱한 쪽으로 잘못 알수록, 사탄의 속이는 작업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신화 내지 허구라고 생각해 준다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데, 그보다 더 손쉬운 상황이 어디 있겠는가?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전쟁 위기 레바논, 복음 전파된 곳곳에 하나님 통치 임하기를



▲ 레바논의 길가에서. 제공: WMM

레바논의 새해 첫날 아침, 저 멀리 구름 사이로 광명한 햇살이 떠오른다. 어두움을 뚫고 오르는 햇살처럼 레바논의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광명한 새날을 맞기를 소망해본다.

국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난민 문제와 맞물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최악의 경제 위기로 지금 레바논은 신음 중이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팔레스타인 지지'를 천명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로켓과 박격포, 미사일 등을 쏘아댔고, 전쟁의 위협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스라엘군과의 무력 충돌로 레바논에서만 지금까지 약 90명의 헤즈볼라 대원과 민간인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베이루트에 기반을 둔 기독교 단체 '승리의 자비 레바논(Triumphant Mercy Lebanon)'은 크리스마스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된 곳곳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공의의 해가 떠올라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 [GPNEWS]

전 세계 신성모독법 국가 95개, 개종금지법 국가는 46개

전 세계에서 신성모독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95개국으로 나타났으며, 개종금지법이 있는 나라는 46개국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지난 11월 발표한 전 세계의 개종금지법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4개국 중 1개국(총 46개국)이 자국민의 종교를 채택하거나 전파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체너티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USCIRF 보고서는 종교를 제한하는 법률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첫째, 개종금지법은 알제리, 부탄, 중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러시아를 포함한 29개국에서 자신의 신앙을 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무슬림에게 자신의 종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두 번째 범주인 종교 간 결혼은 요르단, 필리핀, 싱가포르

를 포함한 25개국에서 제한된다. 카타르에서는 아내가 이슬람교로 개종했지만 남편이 개종하지 않은 경우 판사가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인 신분증 관련 법은 이라크, 말레이시아, 터키 등 7개 국가에서 개인의 공식적인 종교 개종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개종자가 개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종의 진정성에 대한 심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브루나이, 모리타니,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의 배교법은 개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멘 같은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별도의 USCIRF 개요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를 포함해 95개 국가에서 신성모독법이 시행되고 있다. 브루나이, 이란, 모리타니,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인도는 국가 차원의 개종금지법이



▲ 네팔 대법원, 기도 혐의로 케샤브 목사에게 징역 1년 선고. 출처: 유튜브 채널 Voice for Justice 영상 캡처

없어서 새로운 보고서의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인도의 28개 주 중 12개 주가 현지 법률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인도의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개종금지법이 존재하는 46개국 중 9개국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이 10개국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16개국, 유럽과 유라시아에는 7개국,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는 4개국이 포함된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파키스탄, 집단 살해 항의 행진... 3주간 1600km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투르바트시 주민 약 200명이 수년간 자행된 사적 제재에 의한 집단 살해와 실종에 항의하며 약 3주간 1600km의 장거리 행진 끝에 지난 21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AP통신을 인용, 2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투르바트시 주민의 행진은 지난달 경찰 구금 중 벌어진 24세 청년의 의문사로 촉발됐으며, 경찰이 대테러 작전인 것처럼 꾸며 의도적으로 이 청년을 살해했다며 항의 행진이 시작됐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져 가는 파키스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태국 하원, 동성 결혼 합법화 초안 압도적 찬성

태국에서 '결혼평등법' 초안이 하원에서 출석의원 371명 중 360명 찬성으로 승인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지난 22일 전했다. 이날 동성 결혼 합법화에 관한 다른 3개 법안 역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기존 법의 '남자', '여자' 등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주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태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를 막아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취주셔서 이들을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회복시켜주십시오.

韓 노인 1인 가구 10%... 절반 이상 무직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는 노인 혼자 사는 가구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주 가운데 절반은 무직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와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통계플러스 겨울호'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가구 비율은 2012년 17.5%에서 지난해 24.1%로 상승했고, 고령자 1인 가구 비중도 5.9%에서 8.7%로 높아졌다. 작년 65세 이상 가구주의 직업은 49.9%가 무직으로 나타났다.

주님, 홀로 살면서도 직업을 갖지 못한 노인들을 돌보아주십시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한국 사회를 회복시켜주셔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4년 1월 8일 ~ 2024년 1월 27일

1월 8일 ~ 1월 13일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10(0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1.10~12(08-17시) ▶경기 의정부 / 복음의영광선교센터(김**)010-7546-5945, 1.11(0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11(0시)~12(24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1.13(0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9교회 진행중.

1월 15일 ~ 1월 20일 ▶대전 대덕 / 신탄진갈보리교회(구**)010-9961-9331, ▶부산 사하 / 영원간병회(김**)010-7227-2560, ▶경남 통영 / 두미교회(서**)010-8924-8569, 1.15~19(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15~19(18-20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2513-7710, 1.19(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9(15~20시), 1.21(15~17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6교회 진행중.

1월 22일 ~ 1월 27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22~24(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야산병원(이**)010-5248-4147, 1.24(00-24시) ▶부산 해운대 / 수영로교회(이**)010-5552-5530, 1.24(21시)~27(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1.27(00-12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1.27(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1.28(12-24시)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임**)010-2276-8221, 그 외 9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2023년은 미국 기독교 부흥의 해... 전국에서 영적 각성

미국은 2023년을 '부흥의 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학 캠퍼스, 해변, 교도소, 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움직임을 목격했다.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연령대, 교단과 배경을 아우르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여러 신앙 지도자들의 증언을 CBN뉴스가 모았다.

'애즈베리 각성'

켄터키주 애즈베리 대학교(Asbury University)에서 100여 명의 사람이 휴즈 강당의 강단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박한 예배가 가장 큰 '불씨'가 됐다고 말한다.

한 학생은 "2월 8일 수요일, 소수이지만 매우 신실한 애즈베리 대학교 학생들 몇 명이 성령님의 인도 하심에 이끌려 아주 오랫동안 채플에 머물렀다."며 "우리는 이 행동으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작은 행동은 이후 수천 명의 사람이 대학 캠퍼스로 모여들어 2주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회개와 치유, 구원을 얻도록 이끌었다.

리 대학교, '부흥의 깊은 우물을 파다'

테네시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사립 기독교 대학인 리 대학교(Lee University)는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250마일(약 400km)이나 떨어져 있지만, 이 작은 학교의 학생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고, 캠퍼스에서 부흥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 대학교 교목인 립 폴츠 목사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애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애즈베리에 갇혀 있지 않으며 앞으로 도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미 전역의 캠퍼스에서 부흥의 깊은 우물을 파도록 깨우고 있으며, 이미 깨어나고 있다. 그 우물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봉인을 뜯고 꿈틀거리며 새로운 생명으로 터져 나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츠 목사는 리 캠퍼스에도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아침 캠퍼스에서 시작되어 온종일 계속되고 있다. 기도와 예배, 회개의 목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10시간이 지나고 있다."

이 부흥 운동은 앨라배마, 켄터키, 미주리,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버지니아의 학교들로 계속 퍼져나갔다.

시더빌 대학교

오하이오주에 있는 시더빌 대학교(Cedarville University)의 토마스 화이트 총장은 애즈베리 부흥 운동이 시작된 지 10일 만에 시더빌 대

학교의 부흥 운동을 담은 다섯 개의 짧은 동영상 클립을 공유했다. 그는 "오늘밤 많은 학생이 다시 모여 약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간증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오늘밤 2명의 학생이 더 구원받았다. 내일 밤 우리는 학생들을 다른 대학으로 보내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며 "지혜를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영상은 계속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아 있던 학생들의 모습이다. 내가 밤 11시쯤 떠났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고 전했다.

텍사스 A&M 대학-코퍼스 크리스티

하나님께서 대학 캠퍼스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일부는 대학 채플에서 대규모 예배가 드려지는 것 외에, 정기적인 예배 시간이 없는 대학에서 야외 기도 모임과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자발적으로 세례가 일어나는 것을 제시한다.

지난 2월,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뉴라이프 교회의 담임목사인 마이클 펠라우어 목사는 소셜 미디어에 텍사스 A&M 대학(Texas A&M Corpus Christi)의 공공 분수대에서 세례가 진행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했다.

오번 대학교

앨라배마주 오번 대학교(Auburn University)에서 열린 세례식은 세례를 희망하는 한 학생의 요청에 즉석으로 시작됐지만, 약 200명의 사람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9월에는 수백 명의 학생이 레드반(Red Barn) 인근 호수에 몸을 담그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관중들은 경외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봤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나이티드 오번(Unite Auburn)의 "예배의 밤(Night of Worship)"에 모였다. 이 캠퍼스 아웃리치 사역은 앨라배마주 학교 기독교 공동체가 연합해서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니 앨런과 조나단 포클루다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패션 뮤직(Passion Music) 팀이 찬양을 인도했다.

흑인을 위한 대학교들(HBCUs)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지난 3월, 한 단체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교로 알려진 미국의 흑인 대학교들(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이하 HBCUs) 사이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보고했



▲ 미국 애즈베리 대학교 부흥 현장. 출처: theasburycollégian.com 캡처

다. 서킷 라이더(Circuit Riders)라는 단체의 사역 중 하나인 블랙 보이스 무브먼트(Black Voices Movement)는 미국 전역의 젊은 흑인 남녀 청년들이 복음 전도자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음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선교사 중 흑인은 1%에 불과해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블랙 보이스 무브먼트의 디렉터인 야스민 피어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20~30개의 HBCUs 캠퍼스들을 순회하며 많은 구원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피어스 디렉터는 "우리는 복음으로만 설명된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에 정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대학생들

대학 캠퍼스에서 치유 사례도 보고됐다. 텍사스 A&M 대학의 한 학생은 도움 없이 견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애기스(Aggies)라고 불리는 대학의 스포츠팀 학생들이 그를 위해 기도한 후 20보를 걸었다. 한 청년은 페이스북 동영상으로 자신이 본 것을 공유했다.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뉴라이프 교회(New Life Church)의 청년 담당 타릭 휘트모어 목사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캠퍼스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휘트모어 목사는 "우리는 학생들이 타협을 회개하고 '아니요, 나는 오늘부터 내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담대함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등 근본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켄터키주

이러한 영적 각성은 대학 캠퍼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켄터키 남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변화됐다.

스콧 핍스 목사는 77일 동안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 받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등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식으로" 움직이셨다고 말했다. 켄터키주 바버빌에 있는 노스 메인 커뮤니티 교회(North Main Community Church)에는 약 3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핍스 목사는 "중독자들이 매일 밤 구원을 받고 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그들 대부분이 기독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주님은 이들을 향해 많이 용서받으셨는데, 이들 대부분은 죽음의 문 앞에 있던 자들이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주

루이지애나주 해먼드에 있는 한 오래된 침례교회에서 나흘 일정의 예배가 8개월 동안 지속됐다. 울드시온 침례교회(Old Zion Baptist Church)에서 2022년 10월 16일에 첫 예배가 열렸고, 2023년 6월까지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17개 주와 2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교회를 찾았다.

보이스 오브 호프 미니스트리(Voice of Hope Ministries)의 데이비드 R. 해리슨 선교사는 6월, "루이지애나에서 일어난 각성 운동은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켰다. 10월 17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을 때만 해도 나와 가족들이 아직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대규모 해변 침례와 교도소 부흥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예

수 운동(Jesus Movement) 당시 청년들 사이에서 영적 충만함이 부어지던 캘리포니아의 한 해변은 수천 명이 모여 세례를 받은 역사적인 장소가 됐다.

최근 개봉한 영화 '예수 혁명(Jesus Revolution)'을 통해 큰 영향을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고, 이들은 7월 캘리포니아 뉴포트 해변, 지금은 파이어즈 코브 해변으로 알려진 곳에서 열린 '예수 혁명 침례식(Jesus Revolution Baptism)'에 참여했다.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의 그렉 로리 목사가 주최한 이 대규모 침례식에는 3만 2500명이 참석했고 6794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다.

오션스 교회(Oceans Church)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침례식"이라고 말하는 바티즈 소칼(Baptize SoCal) 행사를 주최했다. 280개 이상의 교회와 8000여 명의 사람들이 피어츠 코브 해안에 모여 4166명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선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또 미국 전역에서 교정 사역을 하는 갓 비하인드 바스(God Behind Bars)는 지난해 599명의 교도소 수감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12만 6000명이 구원받았다고 보고했다.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세례 받아

전국의 많은 교회가 기록적인 규모의 침례를 경험했으며, 그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8월에는 라이프 처치(Life Church)의 40개 이상의 지교회에서 2000건 이상의 침례가 행해졌다. 오콜라호마주에 있는 이 대형 교회는 교회가 준비한 대형 침례 시설에서 침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축하했고, 일부는 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조에서 세례를 받기도 했는데, 이 장면은 촬영된 비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 포레스트(Champion Forest) 공원에서 755명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아텐의 빌트모어 교회(The Biltmore Church)에서는 어느 주일 아침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테네시주 헨더슨빌의 롱홀로우 교회(Long Hollow Church)에서 열린 한 예배에서는 136명이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순종하는

이명진 원장 (명이비인후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장)



• 1면에 이어

-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의학칼럼니스트라는 특별한 직함을 갖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인도로 제가 순종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할머니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90년 전에 호주에서 오신 의료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계시던 경남 통영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당하셨어요. 그때 트루딩 목사님과 아이렌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 오셨어요. 당시 할머니는 사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는데, 가정 형편도 어렵고 아무런 조치를 못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곳에서 눈을 고쳐준다는 얘기를 듣고 간호사였던 아이렌 선교사님을 찾아가셨다고 해요. 그때 눈을 고침 받고 복음도 받게 됐어요. 그 이후, 할머니는 선교사님 사역을 도와주는 현직인이 되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신앙이 이어져 제가 3대째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몰랐어요. 또 어릴 때 엄격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던 고신 측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 그러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언제였나요?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집중적으로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도 저의 내면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당시 수련회에 가면 강사님들이 목사되라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은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자신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고 그분들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해서 저도 손을 들었어요. 이제 나는 목사가 되나보다 생각하고 고3 무렵 신학대학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는 아닌 것 같았어요. 목회자가 되면, 제가 교인들을 너무 괴롭힐 것 같았거든요. 지

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은 몰랐던 거죠.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결혼하고 나서였어요.”

학생 때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

-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당시 신학대 대신 의대에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고 장가도 가고 세상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11살 때, 한 주에 두 번 수혈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골수이식을 해야 할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건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는 하루하루가 위험한 상태로 응급실 쫓아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잘못된 게 뻔한데 아이가 아프니까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때를 쓴 적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게 내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데,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내 생명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게 된 마음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러나 당시는 깨닫기만 하고 사명을 알지 못했어요.”

- 그렇군요.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군요.

“당시에 욕기 말씀이 많이 와닿긴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너무 두렵게 느껴졌어요. 제가 하나님과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30년 전에 의사가 되고 그 무렵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죠. 하나님이 많은 걸 저한테 주셨는데, 많은 재능을 사회 활동하면서 쓰고 있었어요. 의사협회일이나 의료정

책 등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아이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죠. 그러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가갔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 서적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5~6년 가졌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기분이었어요. 끝날 것 같지 않던 터널의 끝이 보이고, 하나님이 기도에도 응답도 주시고 뜻을 보여주셨어요. 아이는 당시 급성전격성간염이라고 간 이식을 안하면 죽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폐혈증으로

까 수치가 올라갔죠. 그때 엘리야가 작은 구름을 봤던 그 구름을 저도 맛봤어요. 이게 작은 구름이구나. 그때 응답의 기쁨이 컸어요. 그 후로 아이가 회복되는데 6~7년 걸렸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서 결혼하고 캐나다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알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 주님이 그렇게 주신 사명이 전도였군요.

“그때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장로로 임명을 받고 성도들을 일으키고 섬기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재밌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제가 야기고 기도하던 성도들을 두고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요. 먼저 전문직 윤리를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의료 윤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되고 책도 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광우병 사태를 보며, 의료윤리에 관심가져

- 광우병 사태를 통해 의료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지경이 넓어지게 되신 거군요.

“이전에 글을 쓸 때 알던 기자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혀 안하고 교회에서만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세상으로 불러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안나가요.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섬길게요.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러는데도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 속으로 ‘네 이야기하지 말고, 잘난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 어떤 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11년 전에 의료윤리연구회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의료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의사, 약사 원로들 중에서 의학신문사의 평론가 그룹이 있어요. 저를 의사 평론가로 임명을 해줬어요. 약사, 의사 합해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의사 평론가로 칼럼도 연재하고 활발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저를 불러내셨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었죠. 교회 밖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더군요. 이후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맡게 되고 반동성애 운동에 길원평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 생명윤리 활동은 이해가 되는데, 반동성애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거죠?

“우리 아이들이 아픈 바람에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딸이 학교에서 받은 쪽지를 보여줬어요. 학교에서 이런 성교육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거기에 오랄섹스를 도와주고 항문성교를 도와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2008, 9년 정도였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큐티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자란 아이들인데, 그런 환경에서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GPNEWS]



▲ 지난 2019년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이명진 원장. 출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웹페이지

죽게 됩니다. 아이의 골수 검사를 했는데 골수세포가 0~5퍼센트였어요. 제가 의사니까 예후를 잘 알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아들 살리시고

-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신 거군요.

“아이에게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골수 이식도 맞는 게 없어서 한계상황이었죠. 남은 생명이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살아선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게 전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저 아이를 데려가시든 안데려가시든 변화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전도를 했어요. 놀랍게도 전도를 할수록 아이가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일줄 알았던 2주가 지났는데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똑똑 떨어지던 수치가 더 이상 안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되니

결국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것을 맡기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생명윤리 운동, 반동성애 운동이에요.”

- 그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에 광우병 파동이 있을 때였어요. 한 집회에서 의사 가운데 분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의사인 제가 볼 때, 내용이 너무 비과학적인 주장들이었어요. 의사는 통계로 생각하는 과학자거든요. 과학은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통계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넣을만한 게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잘못됐는지 생각했는데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 저렇게 하면 안된다. 낮은 확률에 위험도 떨어지는데 저걸 가지고 저러는 건 선동이다. 저건 의학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항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짚어서 설명하고 반박할 힘이 없더군요. 그때부터 윤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들이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진 원장은 맨 우측. 제공: 이명진 원장





성탄절 전국 곳곳에서 외침,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4시, 전국 곳곳에서 예수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심을 선포하는 ‘예수복음만세운동’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12월 한 달 동안에도 예수복음만세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서 성탄의 메시지가 선포됐다. 이번 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소감을 모았다. <편집자>

천변(川邊)전도를 하는 매주 화요일, 12월 첫 주부터는 성탄 메시지를 선포하며 전도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이 온 날도 우리는 쉬고 싶었지만, 주님의 열심은 쉬지 않으셨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신나게 불렀던 동요 가사의 끝자락을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니 난난난 나는 괜찮아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혹 날이 좋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최영신 날씨가 추워지면서 움추러들지



▲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제공: 예수복음만세운동

만 이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큼니다. 이번 주일에는 강남역에서 예수만세운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기에 이 땅에서 힘차게 외쳐 봅니다. ‘회개하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강남역을 오고 가는 모든 청소년, 청년, 장년분들과 주님을 더 사모하고 바라는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김창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군 부대에 들어가서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성가 연주곡부터 틀어 놓고 군인들 두발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부터는 복음성가를 틀어 놓고 기도하며 군 부대에서 미용을 하는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두발 자르기 바쁜 가운데서도 순간마다 나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면서 군인들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 세대를 더욱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포스터도 붙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작지만, 한 3주

전부터 준비한 성탄 선물을 군인들에게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군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한국과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홍희경
예산 덕산스파에서 ‘예수복음만세!’를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연휴여서 놀러온 그 자리에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건네진 전도지를 받아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교회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김철우 [GPNEWS]



크리스천의 세상 바로 보기

충남 도민,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충남도의회에서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찬성 31, 반대 13으로 절대다수의 지지로 통과됐다.

조례 폐지를 위해 노력해 온 충남기독교총연합회(총기총) 등 기독교계,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우학연) 등 시민단체 등은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습 측면에서, 생활지도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인권 측면에서, 학생의 이익 측면에서 왜 해로운 것인지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안에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의 각종 교육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 밖에 있는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 생활 규정을 바꾸게 하는데, 이것은 곧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생활 규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32조는 학교 생활 규정을 만들 권한은 단위 학교의 교장, 학칙의 내용을 규정하는 권한은 대통령, 학교 생활 규정을 심의할 권한은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

감이나 도의원들에게는 학교 생활 규정을 만들거나 심의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조례로써 규정을 만들어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교 자치의 법률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성적 부진 학생을 지도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의 동의 조항으로 지도가 어렵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 교육과정에도 성적 부진 학생을 위한 지도 지침이 있을 것인데, 지자체가 조례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합법적일까? 또,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다. 지자체 의원들이 왜 학생들의 교육 개선 활동을 훼방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

한국교총의 조사에서 83%의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육할 권한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통치자가 국정운영을 할 수 없듯이,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지도할 수 있을까?

지난 7월 충남도의회 의정토론

회에서 충남의 교원노조의 한 교사는 발언을 통해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때 아직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있는 교사들이 남아 있는 지금이라도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등은 특정 정당의 이데올로기에는 어울린다. 하지만 그것을 교육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일이다. 또, 그것을 명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인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보호자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인권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6세 이하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나라다.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성간·동성간 성관계 경험에 있는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법치국가의 조례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 학생 때 조기에 성관계를 시작한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행해진다.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놓고 볼 때에 학생 때에 성관계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해로운 조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적인 판결은 어떨까? 2015년 대법원은 교육부의 전북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을 단위 학교의 학교 생활 규정 제정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이미 2012년에 경기도 교육청이 단위 학교에 권력을 동원해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 개정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법제처는 교육부에 단위 학교가 학칙을 제정, 개정할 때에 학생인권조례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도 신뢰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학생인권조례 지지 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다. [GPNEWS] S.Y

복음의 능력

지금 거듭나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고 장사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할 유일한 시간이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칭의와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영생(永生)을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즉 부(富), 학식, 세상의 위로, 건강, 집, 땅, 친구는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이 세상에서 살고 기동하며,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듯이, 거듭나야 천국에서 살며 기동할 수 있다. 장차 능히 해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도가 영광 중에 거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거듭났는가?”라고 묻고 싶다. 다시 강조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GPNEWS]

‘거듭났는가 (J. C. 라일)’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복음! (11)

주님 손에 자신을 맡겼던 절대 믿음의 사람 '다윗'

다윗은 사울이 실패한 왕국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미친 왕의 시기와 질투로 그 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 추적을 당하면서 피 말리는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다. 목동 출신의 도망자에 나이까지 어린, 지도자의 자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정치적인 경험이나 군인으로 경험이 없었고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배경,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다. 다윗의 생애를 말할 수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믿음이었다.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

막내아들로 태어나서 별로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외면당하던 별 볼 일 없는 어린 소년, 다윗. 광야에서 양 몇 마

리를 키우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그의 삶은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곰과 사자가 출몰하는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막내 자식을 두는 것이 집의 분위기였다. 그의 어린 시절은 베들레헴 광야에서 천지에 홀로였으나 우울하거나 나쁜 일에 빠지지 않았다.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양들을 돌보면서 목동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시지 시편 23편을 통해 영적인 노래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다윗의 삶에 절대적인 한 분 주님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와는 양에게 “오직”이었고, “절



일러스트=이예린

대”였다. “절대! 오직! 그분 밖에! 그리고 그분이면 충분했다.” 시편 23편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할 만한 능력이 없다. 목동 없으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짐승이 양이다. 양을 돌보는 작은 목동으로 살면서 다윗은 의

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다.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믿음을

“절대 믿음”이라고 한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면 충분했다

다윗은 넘어졌을 때조차 다른 길을 찾지 않았다. 때 맞더라도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아이처럼, 범죄하여 넘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가 오직 붙들 건 주님밖에 없었다. 주님의 용서밖에 없었다. “주님 손에 넘겨지는 게 더 가혹할지라도 사람 손에 나를 맡기지 마소서. 주님 나를 때리시더라도 주님 손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나는 주님 떠나면 못 삽니다.” 그는 평생 그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주님이면 충분했다. (2018년 8월) <계속> [GPNEWS]

김용익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app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복음기도신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출시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음기도총서2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eBook도 있습니다

김용익의 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들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킨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boaz.co.kr



죄인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목적으로 전도나 수도꼭지를 갈아줄 정도의 일을 배웠다. 수리공을 부르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소문이 나 칭찬을 듣게 됐다. 선한 동기로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나의 영광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복음 앞에서 보니 알게 됐다.

나는 굳이 싫다고 말하기보다 모든 것에 좋다고 말했다. 문제는 싫은 것도 좋다고 말하는 외식자로 살다 보니 양심에 화인을 맞아 감각을 잃어버렸다. 사람의 인정과 평판 안에 갇혀서 오랫동안 선한 나의 병든 옛 자아에 숨어 있던 흉악한 죄를 주님은 복음의 빛 앞에서 들춰내 주셨다.

한번은 공동체 생활을 하던 중, 공사를 하다가 고관절을 다치게 됐다. 건축 자재를 날라야 했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공동체 선교사님 두 분이 작업 시간 전에 새벽 일



일러스트=고은선

찍 일어나 보강토를 나 대신 날라주셨다. 남에게 베풀고 주는 것만 좋아했던 나는 받는 것이 참 어려웠다. 그런데 복음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을 베풀고 어느 편은 받는 것이었다. 이후 어려워하지 않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주님은 그렇게 내 삶을 조금씩 바꿔주셨다.

나는 여전히 예스맨이다. 그리고 고관절이 여전히 아프다. 공동체에서 걸림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바라본다. 내게 아픈 다리가 있다는 것은 주님만 보게 하시는 은혜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크다. 병의 치유보다 더욱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신다. 낮게 하시는 것도 그대로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임을 믿는다.

3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돌덩이 같은 믿음으로 믿는 것은 매일매일 놀이를 하는 것 같이 기쁘고 새로운 도전이 된다.

공동체 식구 중 몇 명이 모여 주일마다 전도를 나간다. 시장에서, 공원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짧게 외친다. 늘 같은 장소를 매번 가다 보니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싸늘한 시선에 집중되어서 위축되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 절박함으로 외치게 하신다.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주님이 친히 하신다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 기쁨을 부여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의 사랑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다.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시고 이 죄인을 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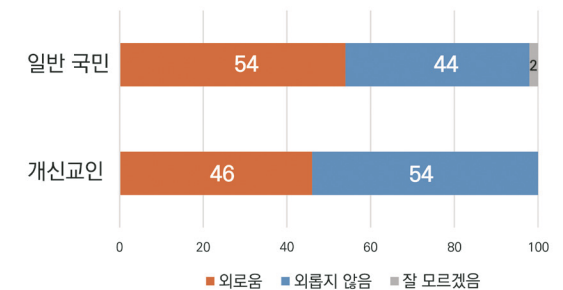
박정훈

데이터로 보는 한국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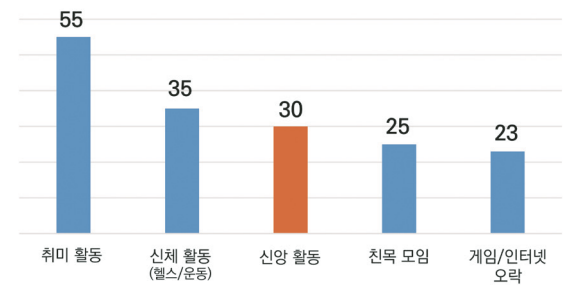


개신교인 46%... 교회에서 외로움 느껴

국내 개신교인의 4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의 외로움 수준(54%)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한국 사회의 심각한 외로움 현상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음을 볼 수 있다. 개신교인의 응답자 중 특성별로 외로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혼·사별자, 1인 가구,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 교회 미출석 성도(가나안 성도)가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로움의 대처 방안으로 개신교인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취미 활동(55%)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신체 활동(헬스, 운동)이 35%, 신앙 활동이 30%, 친목 모임 25%, 게임, 인터넷 오락이 23%로 나타났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 GDP 3년째 역성장... 남북한 소득 격차 30배



▲ 북한의 수도 평양. 출처: Unsplash의 Micha Brändli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보다 0.2% 감소하며 3년째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

표한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남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는 30배로 확대됐으며 대외 무역액 격차는 892배에 달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는 36조 2000억 원으로 남한(2161조 8000억 원)의 60분의 1(1.7%) 수준이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6조 7000억 원, 1인당 GNI는 14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5% 늘었다. 남한(4249

만 원)과의 격차는 29.7배로 2021년(28.6배)보다 격차가 커졌다. 지난해 북한 인구는 257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명 늘어 남한 인구(5167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은 451만t으로 1년 전보다 4.0% 감소했고 이중 쌀이 207만t으로 3.8% 줄어 남한(376만t)의 55.1% 수준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 총액은 15억 9000만 달러로 122.4% 늘어 남한(1조 4000억 달러)과의 격차는 892.2배로 좁혀졌다. 북한의 수출이 1억 6000만 달러, 수입이 14억 3000만 달러로 각각 93.9%, 126.1% 늘었다.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비중이 96.7%에 달했다. 최대 수출 품목은 '광·슬랙 및 회'로 28.0%를 차지했고 최대 수입 품목은 '광물성연료·

광물유'로 36.4%를 차지했다.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8270MW로 남한의 17분의 1, 발전전력량은 264억kWh로 남

한의 23분의 1에 불과했다. [GPNEWS]

北, 한파 계속... 식량·난방용 땔감 부족

최근 북한 날씨가 곳에 따라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난방용 땔감이 부족해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최근 회령시에서 난방용 땔감을 장만하지 못해 ‘식량도 부족하는데 땔감까지 마련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코로나 시기에 생활이 어려운 세대도 최소 나무 1m³의 난방용 화목은 장만했는

데 겨울이 되면서 갑자기 나무 가격이 급등해 이마저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나무를 입방미터씩 사는 게 너무 비싸니까 한 단씩 사다가 겨우 난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북한에서도 고열과 기침 등 독감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

림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잘 먹이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진 데다 추운 날씨에 집까지 따뜻하지 못하니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앓아 누울 수밖에 없다.”며 “독한 감기에 걸려도 약 한 알 사먹이기 어려운 실정에 부모들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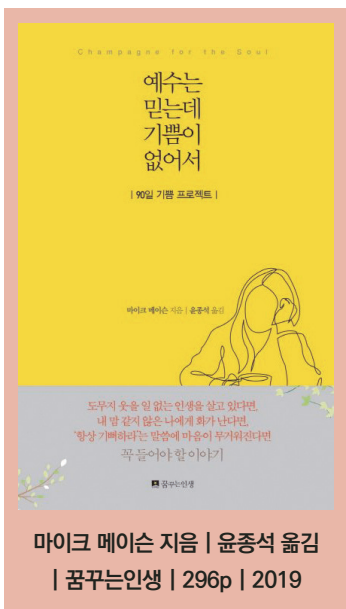


▲ 겨울을 맞은 북한의 한 지역. 출처: north-korea-travel.com 캡처



마이크 메이슨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기쁨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 온다



내가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긋지긋한 내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우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에 나의 믿음의 삶에서 '기쁨'은 참 의미 있고 소중한 단어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나는 만났다.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자는 나와 비슷한 점이 많다. 자신이 거의 평생을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 심한 중독에 빠져 클리닉을 다녔으며, 그리스도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깊은 우울증 속에 있었다. 그랬던 그가 90일 동안 주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실패의 여지를 염두에 둔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90일을 넘어 수년이 지나 이 책을 쓸 때까지도 (아마 지금도) 날마다 기

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짧은 90개의 에세이로 엮어진 이 책은 굳이 단숨에 읽지 않아도 좋다. 믿음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 한 편씩 꺼내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던지 이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완전하고 근본적인 기쁨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의 한계와 현실적인 무게에 치여 허덕이는 삶을 사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혹시 우리는 기쁨과 행복에 대한 다른 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기쁨을 느낌이나 감정, 또는 특정한 상황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실험은 사랑하는 교회 친구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 아픔이 축진제가 되어 시작됐다. 그리고 기쁨의 동기가 상황이나 환경 등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매일의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인다.

처음에 작가 자신의 자신감으로 시작했던 이 실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경배로 바뀌어 간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 안에서만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실험을 하며 작가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책을 읽으며 참 많은 문장에 밑줄을 친 것 같다.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마음을 뺏겨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내 마음 속에 이 문장들을 다시 새겨 넣었다. 역설적인 진리, 우리의 패

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재료가 되고, 고난이 인내라는 다리를 통해 기쁨과 하나가 된다는 표현이 기쁨으로 마음에 받아들였다.

기쁨의 목적은 기쁨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선한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기쁨은 대단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또는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가 주신 복음을 누리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삶을 사신다. 이것이 저자의 요지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기쁨은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은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GPNEWS]

이귀영 선교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프랭클린 그래함, "교황은 '죄'를 축복할 권리 없다"



▲ 프랭클린 그래함. 출처 : 유튜브 채널 Good Gospel Channel 영상 캡처

할 것이다!"라고 썼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교황을 포함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는 것을 '축복'할 권리가 없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사 5:20)"라며 "좋은 소식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조건대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범법자와 죄인의 멸망이 함께 있을 것이며,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멸망하리라'(사 1:28)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래함 목사의 발언은 교황청 신앙교리부(Dicastery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가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선언을 발표한 몇 시간 후에 나왔다. 이 선언은 "축복의 고전적 이해를 확장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기독교적인 시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 교회 지도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혼인에 대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을 바꾸지 않고도 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또한 주님의 자비에 대한 깊은 신뢰의 제스처다. 주님을 경배하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톨릭 교회의 축복을 구하러 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는 "사람들이 축복을 청할 때 철저한 도덕적 분석을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축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도덕적 완전을 미리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축복은 특별한 은혜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축복은 자신들이 가난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자신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문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부부의 축복을 위한 의식을 제공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동시에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

게 교회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안수받은 사제는 이 즉흥적인 축복에 앞서 간단한 기도를 통해 개인에게 평화와 건강, 인내의 정신, 대화, 상호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황청은 2021년에 발표한 선언문에서 "하나님이 죄를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동성 결혼을 축복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동성 간의 매력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에 행위는 죄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019년 설문조사에서 가톨릭 신자 10명 중 약 6명(61%)이 게이와 레즈비언의 결혼 허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바티칸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거나 성전환 호르몬을 복용한 사람도 "신자들 사이에서 공공의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경우"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GP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12. 6 ~ 12. 24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정숙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단현철 신혜경 안수경 이보희 이은주 이장원 임수진 장근혜 정금자 정옥영 정호진 조복형 최근희 최은설 무명

교회 및 단체
고현교회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모리아선교회 복음가득한교회 빛과함께하는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생명의빛교회 시흥교회 열매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주소망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험시바교회 흥고집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press@gpnews.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